



2020년 8월 2일(제993호) 연중 제18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기적을 일으키는 힘, 감사”

중증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요청하는 상당수의 병사는 이것저것 불평불만인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만, 집안 형편에 대한 불만, 군 복무 환경에 대한 불만, 전우들에 대한 불만 등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병사들에게 가끔 ‘감사일기’를 써볼 것을 권유합니다.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했던 일들을 찾아 일기장에 적어보라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일기장을 앞에 두고 한참을 머뭇거리던 병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일을 적기에 다섯 가지는 너무 적다며, 더 쓰면 안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 병사들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변화되어가면서 군 생활도 서서히 변화되어감을 느낍니다. 항상 어둡던 얼굴이 밝아지고, 혼자 지내려 하던 모습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하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챙기려는 태도로 변화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라지고 모범적인 병사로 탈바꿈합니다. 그들을 바꾼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감사’의 기적을 확인시켜줍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성인 한 명이 한두 끼 정도 해결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렸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찬미가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더 가지려 하고, 더 올라가야 하고, 더 알려고 하니 늘 부족함만 느껴지고 불평만 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을 내다보며 불안해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이 사는 ‘지금, 여기’에 와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이켜보며 오늘 하루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맑은 하늘이 감사했고, 간부 식당에서 먹은 맛있는 점심 한 끼가 감사했고, 저의 손발이 되어 성당의 여러 일을 해주는 군종병들의 수고가 감사했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서 감사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들에서 감사함을 찾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나의 삶이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김경욱(미키벨) 신부  
회상대(10집비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55,1-3  
**회 답 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 2 독 시** 로마 8,35.37-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마태 14,13-21  
**영 성 제 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최창현 요한



성인명: 최창현 요한 (崔昌顯 John)

신분: 회장, 번역가, 순교자

활동연도: 1759-1801년

최창현(崔昌顯) 요한은 1759년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입정동에서 살았다. 호는 '관천'이었으며, 1795년에 순교한 최인길 마티아가 비록 그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집안 아저씨뻘이 된다.

1784년 겨울,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교리를 배워 입교한 최 요한은 곧바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였다. 글을 잘 알았던 그는 한문으로 된 교회 서적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데 열중하였다. 이때 그가 번역한 책들은 한문을 모르는 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온한 마음과 조심스러운 행동을 지녔으며, 모든 일을 부지런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지도층 신자들은 최 요한을 총회장 역할을 하도록 추대하였다. 그는 언제나 교우들이 타당하게 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교회 일을 열심히 도왔다. 특히 그의 교리 설명은 유명하였으며, 덕망도 뛰어나 모든 교우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게 되었다. 1791년의 신해박해 이후, 일부 지도층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였는데도 최 요한만은 깨끗하게 교회를 지켜나갔다. 그는 동료들과 의논하여 성직자를 영입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1794년 말 주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 최 요한은 정식으로 회장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그는 주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고 그에게 성사를 받았으며, 언제나 미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다. 또 그는 동료들과 함께 교리를 연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난 직후, 최 요한은 다른 교우의 집으로 잠시 피신하였다. 그러나 병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밀고자가 데리고 온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처음에 그는 포도청으로 끌려갔으나,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있었으므로, 곧바로 상급 재판소인 의금부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의금부에서 처음 문초를 받을 때, 최 요한은 한때 마음이 약해져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일을 밀고하지는 않았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혹독한 형벌을 받았는데, 형벌을 받으면서 용맹한 마음이 되살아났고, 이내 그는 전날의 약했던 마음을 진실히 뉘우치며,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최창현 요한은 끝으로 '자신이 천주교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였다.

###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그래, 함께 나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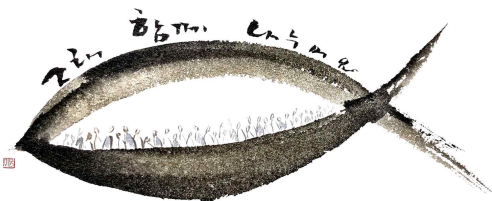
그래,  
함께 나누어요.

우리는  
그리 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  
함께 나누어요.

그들은  
함께 행복했습니다.



상화이야기

세례자 요한의 침수형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로데를 비판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헤로데의 생일을 맞아 연회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어, 왕에게 세례자 요한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을 하게 되어 침수형을 당한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부추김에 따라,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다 달라”고 청하는데, 이 그림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일단 가장 뒷 배경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는 장면이 있고, 중간에는 헤로데의 연회 장면이 보이며, 전경에는 목이 베인 세례자 요한과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는 헤로디아의 딸이 보인다.

안 롬부즈, 제작연도 미상  
166x70cm  
로이벤 시립 미술관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של 위한 미사 - 연중 제18주일: 회랑 김준영 신부

◆ 교구장 동정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8월 3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추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